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방부의 '우여곡절' 6개월

출범 초,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송영무 국방장관, 말 많던 인사청문회
 외교안보라인 흔들...현무 미사일 불발
 공관병 갑질·K-9 폭발사고·도비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부처 중 하나가 바로 국방부 아닐까. 정부 출범 초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건과 송영무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최근 현무-2A 불발, 청와대 엄중경고, 외교안보라인 잇박자 논란까지 국방부는 어느 부서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 K-9 자주포 폭발사고, 최근 철원 모부대 A일병 총기 사망사고까지 다사다난한 6개월을 보내고 있다.

첫번째 사건은 대통령 취임 2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회의 출범 8일만인 지난 5월 30일 터졌다.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누락 사건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한민군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5월31일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국방부를 불러 긴급 추가보고를 실시했으나,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사드에 대해 보고를 했

다고 주장하고 국정기획위는 이를 부인하면서 입장만 엇갈렸다. 당시 취재진들이 보고를 마치고 나온 뒤 송영무 국방정책실장에게 사드 보고누락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위 국방정책실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7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같은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군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드 보고 누락을 발미로 국방부를 압박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켜 사드 배치 시기를 연기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말도 많았다. 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이 해군 중령 시절인 1991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헌병대나 법무실 조사없이 그해 7월 대령으로 승진했다며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 장관은 위장전입, 딸 취업 특혜, 군납 비리 연루, 방산업체 유착 의혹도 받았다. 송 장관은 또 모 대형 로펌 상임고문 재직 당시 거액의 지분료를 받아 전관예우 비판이 불거지

자 '일반인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송 장관의 인사청문회보고서는 청와대가 재송부 요구까지 했지만 야권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해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결국 13일 송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송 장관의 말이 화근이 됐다. 송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 목적에 대해 "그 의도체 제안전 보장용)는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 대통령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튀나 자유분방해서 저 사람은 상대해선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학자 입장이지만 안보특보나 정책특보는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해 장관이 개인 의견을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송 장관은 또 지난 4일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진술해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2주 뒤 다시 말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이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로 대응했으나 1발이 바다에 추락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8월에는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단에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크게 이목을 끌었다. 박 대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대장 구속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04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령 현의 구속 이후 13년만이다. 박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이 부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자금흐름이 이상한 부분을 포착했다. 또 민간 고철업자가 박 대장이 재직하던 제2작전사령부의 인찰을 수수한 과정에서 돈거래 및 항응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9월30일부로 141개부대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 중인 113명은 10월 중 전부대로 보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지난 8월18일에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육군 포병부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가 포격 훈련 중 폭발해 이태군(26) 상사, 위동민(20) 병장, 정수연(22) 상병 등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군은 "자주포에서 포탄 장전 후 원인불상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뒤 내부의 장악이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강원 철원군 육군 모 부대 소속 A일병이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께 강원 철원군 금화산 일대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소대장 등 부대원 28명과 복귀하던 중 버리에 총상을 입었다. 당시 A일병은 복귀한 부대원의 가장 뒤편에서 부소대장(중사) 등 3명과 함께 이동하다가 갑자기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군은 A일병의 사망원인을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장애물에 맞고 튕긴 탄환)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비탄 여부와 안전통제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뉴스스



총알만 알고 있다... "감춰진 '도비탄 사고' 적지 않다"

허술한 군부대 사격장 관리 지적

"도비탄 사망사고는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강원 지역 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대령 A씨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다.

지난달 26일 철원군 부대 사격장 인근에서 이모(22)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

은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발표 이후 도비탄 총기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현직에 있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라며 허술한 군부대 사격장 관리를 지적했다.

A씨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사격장 인

근에서 민간인이 허벅지에 도비탄을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격장 설계시 탄환이 사격장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격장 주위로 방탄벽 등이 설치돼야 하는데 실제 우리 군 사격장은 철조망도 제대로 쳐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지역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현역 군 간부는 "강원도에서 근

무할 때 도비탄이 사격장 표적지 근처 방호벽에 숨어있던 병사의 방탄모를 맞추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병 사망사건도 머리에 탄환이 박혀있는 상태라면 도비탄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직격탄으로 맞았다면 머리를 관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부터 현역 간부들까지 과거 발생한 도비탄 사고를 예로 들며 이번 사건이 아주 희귀한 사고 케이스는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결국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군의 안

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사고 당시 이 일병과 진지공사를 마치고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들을 인솔하던 간부는 사격 소리가 들렸음에도 사격장 인근 통행로로 병사들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포럼의 군사전문가 양욱 선임연구원은 "사건 수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세계인의 밥상 이거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